

전 세계를 사로잡은 새로운 어린이 문학!
구스범스, 드디어 7권 출간!

구스범스[®]

시리즈



07 늑대인간의 울음소리 R.L. 스타인 지음 ·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 2014.12.10 발행 / 140*205 / 무선제책 / 각 권 8,500원 / 978-89-6548-169-0 74840(세트)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내 뒤를 밟는 발소리,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 과연, 늑대인간은 누구일까?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 선정도서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3회 연속 수상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베스트셀러 시리즈 구스범스. 그 일곱 번째 책 『구스범스 07. 늑대인간의 울음소리』가 출간되었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드물게 세계에서 인정받은 어린이 호러문학의 걸작이다. 작가 R. L. 스타인은 어린이 문학 계에서 세계적인 스틸러 작가 스티븐 킹과 비견되며,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의 작가(Gon-cc, 일본 블로거)”, “무서운 이야기를 유쾌하게 쓰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작가(칼리베라, 이탈리아 독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이 시리즈는 아동 상담 전문가 권윤정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시켜 자기 안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는 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호러’라고 해서 잔인한 오락물이 아닐까 염려하는 어른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건강한 호러문학이다.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을 조심하라! 결말을 예상할 수 없는 늑대인간 미스터리!

이번에 출간된 7권은 늑대인간 전설을 모티프로 했다. 서양의 괴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늑대인간은, 평소에는 인간이다가 보름달만 뜨면 늑대로 변하는 괴물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늑대인간의 매력은 무엇일까? 바로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적이고 똑똑한 소년 그래디는 울창한 나무와 녹녹한 습지로 가득한 외딴 동네로 이사 온다. 모험 심에 이끌려 숲으로 들어간 그래디는 한적한 곳에서 을씨년스러운 오두막과 짐승을 닮은 남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래디 앞에 느닷없이 늑대를 닮은 개가 나타난다. 그로부터 보름달이 뜨면 집 가까이에서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다음 날이면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당한 동물의 시체가 하나씩 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디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 가다가 늑대인간의 존재를 의심한다.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 가운데, 그래디의 추적이 계속된다.

7권은 다른 권들보다 미스터리 스틸러의 성격이 훨씬 강해졌다. 거기에 과학의 세계와 초과학의 세계가 대립되면서 색다른 추리물로 다가온다. 끝까지 정체를 알아맞히기 힘든 늑대인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래디와 함께 “과연 늑대인간은 누구인가?”를 맞춰 볼 것을 권한다. 언제나 그렇듯, 범인은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 [시리즈 소개] 구스범스 시리즈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구스범스 01. 목각 인형의 웃음소리 소윤경 그림 · 노은정 옮김

결결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빛, 방 안을 돌아다니는 시커먼 그림자. 과연 인형의 정체는?

구스범스 02. 가면의 복수 오윤화 그림 · 고정아 옮김

친구들로부터 늘 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칼리. 헬러윈 날 끔찍하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친구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는데…….

구스범스 03. 빈집의 숨바꼭질 조원희 그림 · 노은정 옮김

아만다는 자꾸만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듣는다. 누군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걸까?

구스범스 04. 여름 캠프의 악몽 조승연 그림 · 고정아 옮김

여름방학을 맞은 빌리는 캠프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다. 무성한 숲 한가운데 캠프장.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구스범스 05. 악령을 부르는 머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과학자 베라 이모가 보낸 괴기스러운 가면과 정글로 오라는 초대장.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악령을 부르는 머리가 빛나기 시작한다.

구스범스 06. 미래의 저주 홍정선 그림 · 노은정 옮김

고고학자 베라 이모가 보낸 괴기스러운 가면과 정글로 오라는 초대장.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악령을 부르는 머리가 빛나기 시작한다.

구스범스 07. 늑대인간의 울음소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하나씩 늘어나는 동물의 시체, 갑자기 나타난 늑대를 닮은 개, 그리고 짐승을 닮은 숲 속 곤 남자. 과연 늑대인간은 누구일까?

* 구스범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꼽힌다.

www.rlstine.com

그린이 허구

서울대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광고와 홍보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다가 어린이 책에 재치와 개성이 가득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린 책으로는 『말하는 까만 돌』, 『거꾸로 세계』, 『커피우유와 소보루빵』, 『우리나라가 백 명의 마을이라면』 등이 있다.

웁진이 고정아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했다.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웁진 책으로는 「구스 범스」 시리즈, 『공포의 학교』, 『킹콩』, 『체트기만큼 빠른 개 길들이기』, 『새를 사랑한 소년』, 『꼬질이 버티』, 『아이비랑 빈이 만났을 때』 등이 있다.